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551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7월 25일 (음력 6월 13일) 수요일

“텃밭 선점” 민주-평화 당권주자들 ‘호남 구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석수 기준 호남 1당인 민주평화당의 차기 당권주자들이 속속 ‘텃밭’ 광주·전남을 찾아 당심과 민심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24일 광주·전남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8·25전당대회 후보등록이 최근 마감되면서 당 대표주자들은 26일 예비경선(컷오프)을 앞두고 예비경선을 치르지 않는 최고위원 후보들은 지도부 입성을 위해 중앙위원과 권리당원 표심 잡기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전남 고흥 출신 4선의 송영길 의원은 지난 1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평화를

민주, 송영길·이해찬·최재성·박광온 광주·전남행

평화, 최경환·유성엽·정동영 등 ‘빅3’ 호남 쟁탈전

노래하디 라는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가진 데 이어 공식 출마 하루 전인 지난 17일 다시 광주를 찾아 홍남순 변호사 홍상재목석 등에 참석하고 지역 당원과 오피니언 리더들을 만났다.

‘신문’ 계열 4선 의원인 화순 출신 최재성 의원도 컷오프 통과를 지상과제로 경선유권

자인 자치단체장과 지역위원장 등 텃밭 중앙위원들과의 게릴라식 접촉을 강화하고 있고 재선의 박법제 의원도 최근 광주를 찾아 방송 출연 등을 통해 표몰이에 주력하고 있다.

국무총리를 지낸 7선의 이해찬 의원도 지난 21일 광주를 찾아 지역 위원장과 면담을 갖는 등 호남 보폭을 넓히고 있다.

8명을 선출하는 최고위원에 출사표를 던진 해남 출신 박광온 의원은 이날 광주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앞서 박정 의원도 지난 21일 영암·무안·신안·나주·화순지역 대의원대회에 잇따라 참석해 표발을 일궜다.

6월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평화당도 ‘텃밭 재건’을 목표로 표밭 다지기에 당권 주자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광주시당위원장인 최경환 의원은 지난 14일 북구 삼각동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평화 토크콘서트’를 열었고, 23일엔 광주 동남을 당원간담회를 갖는 등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처가 전남 나주인 유성엽 의원은 지난

18일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로운 인물론을 강조했다.

정동영 의원은 25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표몰이에 나설 예정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비롯해 4·27 관문점선인 국회 비준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과 분권형 개헌안 등을 대표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이밖에, 무안출신 이윤석 전 의원, 목포 출신 민영삼 최고위원도 다음달 5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표심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두 당의 당 대표와 최고위원 주자들이 호남에 남다른 공을 들이는 데는 호남에 정치적 뿌리를 뒀다는 상징적 이유도 있지만 ‘호남의 전략적 선택’이 결국 전당대회 당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광주지역 민주당원수는 30만명, 전남은 42만8000명으로 광주·전남을 합하면 70만명을 훌쩍 넘어선다. 당비 약정당원수만도 3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평화당도 전체 당원 9만4000명 가운데 45%가 광주·전남에 집중돼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여당과 야당에서 호남 출신 당 대표가 동반 당선될 수 있을지, 진영 대결과 함께 지역 출신 복수의 후보가 출마한데 따른 표심 분산 등의 변수가 지도부 선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가 관심사”라고 말했다.

신봉우 기자



강진청자 조각하는 도공 제46회 강진청자축제 개막을 앞둔 24일 오전 강진군 대구면 강진청자박물관에서 도공들이 축제 때 선보일 청자작품의 조각작업을 하고 있다. 축제는 오는 28일 개막해 8월3일까지 열리며 경품추첨을 통해 1등에게 3000만원 상당의 강진청자를 제공한다.

전남해역에 적조·고수온 주의보 발령 ‘이중고’

전남도는 24일 전남 해역에 적조주의보와 고수온 주의보가 잇따라 발령돼 비상이 걸렸다.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계속되는 폭염으로 바다수온이 28도 이상으로 오르고 첫 유해성 적조생물이 발생함에 따라 국립수산물관리원은 24일 오전 10시 여수해역에 적조주의보를, 여수~장흥 특랑만해역에 고수온주의보를 발령했다.

‘적조주의보’는 유해성 적조생물인 코클로디니움 밀도가 100개체/ml 이상 출현할 경우 발령된다. 여수 해역은 예찰 결과 유해성 적조생물인 코클로디니움 밀도가 20~761개체/ml로 조사됐다.

여기에 지난 23일 현재 여수 신월~장흥 회진 해역 수온은 26~29.3도, 해남 화산 해역은 27.5도, 신안 입해~영광 안마도 해역은 28.4~28.9도로 급격히 상승하고 있어 양식생물 피해가 우려된다.

이처럼 적조·고수온이 발생하면 양식 어패류는 수온소크 생리기능 저하, 면역력 약화, 산소 부족 등으로 피해가 나타난다.

주로 육상의 넘치 양식장과 해상의 조피불라, 집복 가두리양식장에서 피해가 많은 만큼 양식어가에서는 어장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양식생물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먹이 공급을 중단하고 액화산소를 충분히 공급해줘야 한다.

육상양식장에서는 적조생물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 해상가두리에서는 차광막 설치 및 선박을 이용한 수류방제 등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전남도는 적조 발생 해역 양식장 주변에 해양환경정화선을 비롯한 방제선과 어선을 배치해 적조생물 분산 및 유입 방지를 위한 황토살포, 수류 방제작업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 적조 발생 우심해역을 중심으로 예찰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적조 상황실과 고수온 현장대응반을 운영하는 한편 차광막 설치 등 예비비 10억원을 긴급 지원키로 했다.

김경환 기자



수준미달

대한여당 조원진 의원의 보좌관 정모씨가 지난 22일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전치국수 드디어 먹었습니다. 오늘 저녁 못드신 분 뭣까지 2인분 먹었습니다라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의 죽음을 조롱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 보좌관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매년 7월 23일을 좌파혁명기념일로 지정하고 전치국수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보좌관은 전치국수 시진을 함께 올렸다. 노 원내대표는 지난해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자 전치국수 드디어 먹었다. 오늘 점심 못드신 분 뭣까지 2인분 먹었다. 매년 3월 10일을 촛불시민혁명기념일로 지정하고 전치국수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서은홍 · 자료사진=뉴시스



조원진



박지원



심상정

■ 실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자연의 숨겨진 보물 창고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남 구례군은 지리산은원, 참새미골, 화염사, 설진강, 운조루, 파야골, 연복사 등을 지나며 주원-산동 구간부터 목아재-기반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